

모리 레이코의 『삼채의 여자』론*

-조선 여인 오타 줄리아를 중심으로-

朴賢玉**

(e-mail: lucia-1007@hanmail.net)

목 차

1. 머리말
 2. 수란(秀蘭=오타 줄리아)과 도공 이광희
 3. 오타 줄리아의 신앙형성
 4. 기리시탄으로서의 오타 줄리아
 5. 맺음말
-

1. 서론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조선 여인 오타 줄리아¹⁾(おたあジュリア)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간행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ユリアとよぶ女)』를 비롯하여 소년 소녀를 위한 다수의 작품들이 출판되었다. 특히 1980년도에는 네 편의 작품이 동시에 출판되었다. 두 편은 소년 소녀를 위한 작품으로 다니 신스케(谷真介)의 『줄리아·오타(ジュリア

*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412).

**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일본 근·현대문학.

1) 한국에서 오타 줄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오타 줄리아의 조선 이름과 생몰도 알 수 없다. 명확한 것은 1596년 구마모토 우토에서 모레혼 신부에게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며 이때 받은 세례명이 줄리아이다. 1611년 슌푸(현 시즈오카)에서 스페인대사 비스카이노를 방문. 1612년 기리시탄 박해로 인하여 슌푸에서 오시마섬을 거쳐 고즈시섬까지 유배를 가게 된 기록들은 그 당시 일본에서 선교사활동을 한 선교사들의 서간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루이스메디나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J.G.ルイズメディアナ(1988) 『遙かなる高麗-16世紀韓国開教と日本イエスス会-』, 近藤出版社.

·おたあ』와 하라다 코사쿠(原田耕作)의 『오타·줄리아(おたあ・ジュリア)』이다. 그리고 모리 레이코(森礼子)의 『삼채의 여자(三彩の女)』와 후테우치 유키코(筆内幸子)의 『오타 줄리아의 생애(おたあジュリアの生涯)』가 출판되었다. 두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독자에게도 소개되었다²⁾. 이렇게 두 작품이 동시에 한국 독자에게 소개된 배경에는 1970년도부터 고즈시마 섬에서 개최된 ‘줄리아축제(ジュリア際)’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줄리아 축제’로 인하여 ‘오타 줄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가 한국에 폭넓게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한·일간에 종교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³⁾.

작품 속에서 모티브가 되어 있는 오타 줄리아는 임진왜란당시 일본에 끌려갔으며 1596년 구마모토의 우토에서 모레혼 신부에게 ‘줄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기리시탄(切支丹) 박해로 인하여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슌푸(현:시즈오카(静岡))에서 도쿄 이즈(伊豆)의 오시마섬(大島)과 니시마섬(新島)을 거쳐 고즈시마섬(神津島)까지 유배를 가게 된다. 이러한 오타 줄리아의 신앙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 작품으로는 후테우치의 『오타 줄리아의 생애』를 들 수 있다. 작품은 선교사의 시선과 성서의 시편 등을 인용해 기리시탄으로서의 오타 줄리아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리 레이코의 『삼채의 여자』는 오타 줄리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삶과 애환을 비롯하여 일본 기리시탄의 역사적 맥락 속에 나타난 기리시탄의 삶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본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 되어있지 않으나, 오타 줄리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군중에 「엔도 슈사쿠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ユリアとよぶ女)』」론-「유리아」에 투영된 오타 줄리아의 이미지-」의 줄고가 있다⁴⁾. 본 작품은 조선여인인 오타 줄리아의 모

2) 모리의 『삼채의 여자』는 1983년 「성녀 줄리아」로, 후테우치의 『오타 줄리아의 생애』는 1996년 「오타 줄리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외의 작품으로는 모리 레이코(森礼子) 『삼채의 여자(三彩の女)』, 후테우치 유키코(筆内幸子)의 『오타 줄리아의 생애(おたあジュリアの生涯)』, 하라다 코사쿠(原田耕作)의 『오타줄리아(おたあ・ジュリア)』, 아라야마 도오루(荒山徹) 『사랑 슬픔을 넘어서(サラシ 哀しみを越えて)』 등이 있다.

3) 한국에서 ‘줄리아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제 2회부터이다. 첫째 참가자는 6명이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수가 점점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160명 이상이 참가한 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오타 줄리아 대한 자료가 한국에 폭넓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고즈시마 섬 마을 산업관광과에서 자료 제공을 받았음.

4) 일본 현대문학에서 오타 줄리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 중에서 엔도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는 초기 작품이다. 줄고에서는 오타 줄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자료의 형성과정과 엔도의 작품분석을 하였다. 박현옥(2012) 「엔도 슈사쿠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론-「유리아」에 투영된 오타 줄리아의 이미지-」, 일본학연구(제35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티브인 유리아의 이미지를 통하여 일본기리시탄인 고니시의 고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동양인인 그녀를 타자화 시킴으로써 서양의 시점에서 본 종교문화 수용에 대한 관점이 아닌 동양의 시점에서 본 종교문화 수용에 대한 관점을 상대화한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리 레이코의 『삼채의 여자』에 주목하여 오타 줄리아가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란(秀蘭=오타 줄리아)과 도공 광희와의 관계를 통하여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녀의 기리시탄 신앙의 형성과정과 조선여인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지 분석한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오타 줄리아라는 모티브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문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수란(秀蘭=오타 줄리아)과 도공 이광희

『삼채의 여자』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임진왜란부터 시작하여 일본 기리시탄 박해까지 전개되어 진다. 『삼채의 여자』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오타 줄리아의 모티브를 통하여 그녀의 신앙만이 아닌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삶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오타 줄리아의 모티브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간 도공들의 삶과 애환을 재조명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삼채의 여자』에서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수란’⁵⁾(秀蘭=오타 줄리아)과 도공 이광희할아버지와와의 관계를 통하여 도공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간 도공을 오타 줄리아란 모티브와 연결하여 작품 속에 등장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공들의 삶은 수란의 눈을 통하여 개인만이 아닌 그들 공동체가 이국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작품의 서두는 도공 이광희가 아들 경진과 함께 화장토를 구하러 갔다 되돌아 길에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수란을 데려와 키우는 장면부터 서술된다. 즉 도공 이광희는 전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수란을 키워주는 부모역할을 하며, 숨씨가 빼어난 도공이다. 도공 광희는 전란 중에도 도자기를 굽기 위한 화장토를 구하기 위해 밤중에 위험을

5) 작품 속에서 수란(秀蘭)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조선인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코드로 사용된다. 양할 아버지를 비롯하여 조선인과의 관계형성과, 자신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양반의 신분을 떠올리게 하는 코드로서 ‘수란’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무릅쓰며 먼 곳까지 찾아간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아이구, 목숨이 줄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은 이제 부탁이니 그만합시다.(中略) 아무리 화장토가 도자기 굽는데 빠트리면 안되는 것이라고 해도, 목숨이 제일 이지요. 아버지. 목숨 걸고 화장토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로, 목숨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게다가 애쓴보람 없이 헛수고만 하고, 한줌의 화장토도 구하지 못하고……이쯤에서 잠시 도자기 만드는 것은 단념하고, 발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6)」

아버지와 함께 화장토를 구하러 온 아들 경진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며 도자기를 구워야 하나며 전란 동안은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공 이광희나 아들 경진에 있어서 도자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과 같은 예술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공 이광희는 나이 든 노인이지만 명절 외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녹로를 돌리고 있으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술을 마시며 도자기의 형태를 구상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생각한다.

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예술 정신은 일본에 끌려가기 전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들 경진은 일본에 끌려가기 전 도자기를 굽기 위해 준비해둔 ‘마을의 가마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며, 가마 속의 불빛이 투명하게 빛나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의 색’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들의 이 말은 아버지 또한 같은 생각이다. 즉 ‘영혼의 색’이라는 가마의 불빛은 좋은 도자기를 굽기 위해 한눈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도공부자(父子)의 예술 정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예술 정신은 어렸을 적 수란의 눈을 통해 표현된다. 수란은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방법에 자신이 있어 그것만 맞다’고 믿는 인간,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인간’이다. 수란에 있어 광희할아버지는 두 번째에 속한다. 즉 어린 수란의 눈을 통해서 그의 예술적 혼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수란의 양할아버지는 뛰어난 솜씨를 가진 도공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아들 경진이 숨어 살자고 말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도공들을 납치해 갔으므로 그러한 위험

6) やれやれ、命がちおまったぞな、お父っあん。こないな仕事は、もうお願いさげにしてくだされや……」(中略) 「どんげい化粧土が焼きものづくりに欠かせんというも、命あつての物だねじゃがね、お父っあん。なにも命がけで、化粧土を探しにいくことはあるまいに。まっこと、命がちおまったぞな。おまけに骨折り損のくたびれ儲で、一握りの化粧土も手に入らず……ここ暫く焼きものづくりは諦めて、そうっと畑仕事をして暮すのがいちばんじゃが、お父っあん……」 森禮子(1983) 『三彩の女』, 主婦の友社, p.4.

을 피하기 위해 농사일을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 부자는 일본에 끌려가게 된다. 작품 속에서 도공 이광희가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마을은 하사미(波佐見)마을이란 곳이다. 작가는 하사미란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사미 마을은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7)가 조선에서 도공들을 납치하여 정착한 시킨 곳으로 이우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도공들이 활동한 곳이다8). 그러나 하사미가 일본과 한국 양측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노성환에 의하면 하사미 도자기가 ‘에도시대부터 이곳에서 생산한 도자기가 이마리항을 통해 「이마리 도자기(伊万里焼)」라는 이름으로 외부로 나갔고, 메이지이후는 아리타역을 통해서 「아리타 도자기(有田焼)」라는 이름으로 외부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라고 한다.9) 즉 출항지에 이름이 가리어져 하사미란 지역명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하사미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 끌려온 도공들의 삶을 수란과 양할아버지인 광희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쓰시마에서 양할아버지와 뜻하지 않게 헤어진 수란은 성인이 된 후 수소문 끝에 하사미란 마을에서 재회를 하게 된다. 수란은 양할아버지 광희에게 함께 살자고 권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를 보고,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수란아, 니가 쓰시마 항에서 거깃말에 속아 없어진 후, 어떻게 지낼까. 귀여운 아이니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고 있을 거야.

그래도 구박 받고 있을지도 몰라. 쳇, 그것만 생각하며 지냈다.(중략)고니시 유키나가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 대장군이며, 쓰시마도 우리나라에서의 은의(恩義)을 잊어버린 미운 나라지만, 마님의 도움을 받은 은혜가 있다. 이제 우리도 겨우 좋아 졌지만, 쳇, 미덥지 않는 처지는 변함이 없다. 난폭한 짓을 당해도 울며 참아야 할 뿐이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기쁘지만, 만약, 비겁한 일본 남자의 눈에 뜨이면 어떻게 하니. 쳇, 쳇,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하다. 힘든 일도 있을 테지만, 쓰시마의 마님을 모시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나라(조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거라……10)」

7) 오무라번주인 오무라는 임진왜란때 고니시가 이끄는 제 1군에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참가 하였다. 퇴각하면서 도공들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갔다. 기리시탄 신자였으나 후에 불교로 개종하였다.鳥津亮二(2010)『小西行長-「抹殺」されたキリシタン大名の実像-』, 八木書店, p.128.

8) 兪華濬(2003) 「李參平-日本の神になった朝鮮陶工-」 『日本の架け橋になった人びと』, 明石書店, p.37.

9) 노성환(2010) 『하사미 도자기와 조선도공』 『日本語文学』, 韓国日本語文学会, p.288. 본 논문은 하사미마을에서 활동했다는 이우경을 비롯하여 그 당시 그 곳에 활동한 도공들에 대해 알려진 기록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고증과 하사미 마을에 남겨진 조선의 가마터 등을 고찰한 논문이다.

10) 「わしはな秀蘭、お前が対馬の港で連れ去られてから、どうしておるじゃろか。愛らしい子じゃから誰ぞに可愛がられておろう。じゃが、やはり虐められているかしらんと、チョッ、それはかり思いくらしてな。(中略)小西行長はわしらの国に攻め込んで来た日本の大将で、対馬国もわしらの国から恩義を忘れた憎い国じゃが、奥方さまに助けら

도공 광희는 이국땅인 이곳에서 자신이 수란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공 광희할아버지는 이국땅에서 온갖 고초와 험난함을 모두 참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도공들의 삶을 비추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란이 하사미 마을에서 본 또 하나의 풍경은 고향에 보았던 들놀이 모습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피리소리에 맞추어 흰옷을 입고 소매를 펼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신이여, 보소서. 나라인 팔도(조선)를 갑자기 떠나, 무슨 조화인지 나그네가 되어 떠도는 것을 업으로 11).

그러나 이 노래는 흥이 담긴 노래가 아닌 지금의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라를 떠난 슬픔과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고 이곳에서의 설움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즉 도공들은 이러한 타향살이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조선에 있을 적 들판에서 모여 놀았던 놀이문화를 재현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다. 본 작품은 수란과 도공 이광희와의 관계를 통하여 임진왜란당시 일본에 납치된 도공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 양측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하사미 마을의 도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도공들의 삶은 수란=오타 줄리아의 시점을 통해 나타나 있다. 그럼 수란=오타 줄리아의 삶과 기리시탄 신앙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3. 오타 줄리아의 신앙형성

『삼채의 여자』는 오타 줄리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 중에서 다른 작품에 비해 그녀에 대한 신앙 형성과정의 잘 묘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삼채의 여자』에 묘사된 수란(=오타 줄리아)를 통하여 기리시탄으로서의 신앙형성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신앙형성 과정은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れた御恩じゃ。今ではわしらもようよう暮しがたつようになったが、チョッ、なんの頼りもない身には変りはない。乱暴されても泣き寝入りばかりでな。一緒に暮したいという気持はうれしいが、もし、卑しい日本の男の目についたらどうする。チョッ、チョッ、思うただけでも背筋が寒いわ。辛いこともあるじゃろうが、対馬の奥方さまに仕えて御恩にむくいるとともに、一日早うわしらが国に戻れるよう、力を籍してくれ……。 주 6)과 같은 책, pp.77~78.

11) 神は照覽し給えや 御代の八路(朝鮮)をころりと廻って 何のためにか 客になり歩くばかりを業として……。 주 6)과 같은 책, p.75.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작품 속에서 모티브가 되어 있는 오타 줄리아는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으므로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그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그녀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어릴 적 시절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예를 들면 엔도의 작품인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에 그려진 오타 줄리아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일반서민의 딸로, 후테우치의 『오타 줄리아의 생애』와 모리의 『삼채의 여자』는 양반의 신분을 가진 딸로 묘사되었다. 이렇게 오타 줄리아를 양반의 딸로 설정하게 된 것은 『일본서교사(日本西教史)』의 내용 중에서 그녀를 ‘귀족(=양반)의 딸’로 기록된 사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엔도와 후테우치의 작품은 기리시탄 신자로서 오타 줄리아의 신앙이 형성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나, 모리의 작품은 그녀가 기리시탄이 되어 가는 과정에 많은 지면이 할애 되었다.

작중에서 모티브가 된 오타 줄리아의 조선 이름은 수란, 일본에 끌려간 후는 오타, 그리고 세례 받은 후 이름은 줄리아이다. 『삼채의 여자』에서 화자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수란’과 ‘오타’이다. 특히 ‘오타’라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그녀의 생애가 일본을 배경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수란’이라는 이름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도공들의 삶을 그녀의 시점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조선여인이며 양반의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수란’이라는 이름을 떠올린다. 수란이 ‘오타’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에서 일본에 잡혀올 때 도공 광희가 왜병에게 그 아이는 얻어 왔다, 얻어 온 애라고 소리친 것을 왜병이 이름으로 착각하여 「오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역사적 문헌 속에는 ‘오타 줄리아’로 기록되어 있다. ‘줄리아’는 세례명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오타’의 이름에 대하여는 그녀가 거쳐 간 지역에 따라 이견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무라는 한국의 김향식(金享植)에게 평양과 경상남도 방면에서 일본의 인사말 ‘어서 오세요 (いらっしやいませ)’가 한국어로 ‘왔다(おたあ)’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그녀가 일본에서 사람들이 집에 오면 ‘왔다(おたあ)’라고 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오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¹³⁾. 그 외 그녀가 지낸 슌푸성에서 오타라고 불리었을 것이라는 설과 혹은 유배도중에 그녀가 머무른 오시마 섬에서는 언니의 명칭을 붙여 오타아네(おたあ姉)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2) 오타 줄리아의 출생에 대한 소개는 대부분 본서에 기록된 부분이 인용되어 있다. クラセ著・大政官本局課訳(1880) 『日本西教会史 下巻』 博聞社, p.197. 그리고 현대 일본에서 출판된 오타 줄리아 대한 자료형성과정은 줄고(2012) 『엔도 슈사쿠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론』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엔도 슈사쿠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론 -「유리아에 투영된 오타 줄리아의 이미지-』, 일본학연구.

13) 田村襄次(1979) 『孤島の華』, おたあジュリア表慶会, 中央出版社, p.36.

그러나 어느 것도 오타의 이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오타 줄리아’가 슌푸성에 갔을 때와 오시마 섬에 유배를 갔을 때는 이미 그녀가 성인이 된 후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오타라고 불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랑(ジラン)의 서간에 의하면 슌푸성에 ‘오타 줄리아’라는 고려 출생의 신분이 높은 여성’이라고 쓰여 있듯이 그 전부터 오타라고 불리어 왔다는 것을 수 있다¹⁴⁾. 이렇게 오타 줄리아의 이름을 둘러싼 다양한 설이 대두하게 된 것은 현대에 들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타라는 이름은 임진왜란의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그녀가 거쳐 간 지역에 의해 신앙인으로서의 의미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삼채의 여자』에서 ‘오타’라는 이름은 작품의 서두에서 임진왜란의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한 의미로 시작하여 기리시탄 오타 줄리아로 변화해 가는 프로세스가 내포되어 있다.

그럼 오타 줄리아(=수란)의 기리시탄 신앙이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작품 속에서 오타가 기리시탄을 접하게 된 것은 소요시토시(宗義智¹⁵⁾)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이다. 마리아는 기리시탄신자이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딸이기도 하다. 수란은 쓰시마에 끌려온 후 질병의 꼬임에 의해 가게에 팔려가게 된 것을 마리아가 구해준 후부터 금석성에서 그녀의 시녀로 일하게 된다. 마리아는 기리시탄신자로 오타에게 기리시탄의 가르침을 권했으나 그녀가 ‘신은 없다’라고 하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고니시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고니시는 딸 마리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일단 믿어도 사람의 마음이 미망이 많은 탓으로 곧 의심하게 되거나 소홀해 지기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타는 처음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양할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소요시토시에게 나가사키에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할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며 청원기도를 한다. 그 후 오타는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양할아버지 광희와 재회를 하게 된다. 오타는 양할아버지에게 함께 살 것을 권하지만 양할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준 분들과 함께 살라’고 한다. 양할아버지 광희의 이러한 결정은 포로인 자신과 함께 살아가면 아름답게 자란 그녀를 타향에서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타의 첫 번째 기도는 그녀를 위한 개인 기

14) J.G. 루이즈메디나(1988) 『遙かなる高麗-16世紀韓国開教と日本イエス会-』, 近藤出版社, p.217.

15) 소 요시토시는 쓰시마도주(對馬島主)이며 아내 마리아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딸이다. 고니시(아오구스딩)일가는 기리시탄신자이며, 소도 고니시의 영향을 받아 기리시탄신자가 되었다. 소요시토시는 임진왜란때 장인 고시니와 함께 1군으로 조선에 침입했으며, 정유재란때는 2진으로 침입하였다. 본 작품 속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전투의 부분보다는 아내 마리아와 관계를 통하여 기리시탄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였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

천주님……오다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만약 정말로 계신다면, 당신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리고 기리시탄 금지령의 금제를 풀기위해 최후의 싸움터에 나간 고니시님의 피를 이어받은 저의 무릎 위의 이 작은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저의 행복을 단념하겠습니다¹⁶⁾.

이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돌봐준 마리아와 갓 태어난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면 자신의 행복을 단념하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다. 이것은 고니시가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에서 동군(도쿠가와)이 아닌 서군편에 가담하여 싸웠으나 서군이 패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니시의 딸인 마리아와 갓 태어난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피난을 가게 된 것이다. 이때 오타는 ‘마님과 아이를 무사히 구해 준다면 자신의 행복’을 단념하겠다고 기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타는 마리아와 같이 배를 타고 쓰시마에서 나가사키(長崎)로 피난을 간다. 나가사키로 간 후 오타는 마리아와 함께 수도원에 지내며 그녀가 생을 마칠 때 까지 함께한 후 세례를 받게 된다.

여기서 오타의 행복이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고니시로부터 하사미마을에 가서 광희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좋다는 것, 두 번째는 포로들을 조선으로 송환할 계획이 있으니 그때 귀국해도 좋다는 것, 세 번째는 오타가 좋아하는 지로마루(次郎丸)로부터 청혼을 받은 것이다. 이때 오타는 지로마루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 한 일본은 적국이므로 결혼할 수 없다고 청혼을 거절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타가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는 이미 고니시로부터 하사미 마을에 가서 양할아버지와 살아도 좋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으므로 지로마루와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타는 지로마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를 떠나 나가사키로 향한 것이다. 게다가 고국으로 갈 수 있는 송환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은 앞으로의 그녀의 삶이 더 파란만장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복선을 나타내고 있다. 오타는 이 두 번째를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자신이 첫 번째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생각해 낸다. 즉,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한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린 것이다.

16) 天主様……と、知らずにおたあは心の中で呟いた。あなたがもし、ほんとうにいられるのなら、あなたを信じているこのひとびとを、そして切支丹禁制をとくために最後の戦に出て行った小西さまの血をひく、わたしの膝の上のこの小さな生命を、助けてください。そのためなら、わたしは自分の幸せを諦めます。주 6)과 같음 책, p.98.

이는 본장의 서두에서 고니시가 말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어려워며, 사람은 곧 의심하거나 소홀해 진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마리아는 일상 삶 속의 기도생활을 통해 오타가 기리시탄이 되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녀의 아버지 고니시는 생을 마감하면서 유서를 통해 가족들에게 기리시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 고니시의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불의의 사건을 당해, 괴로움의 정도는 서면으로는 다 쓸 수가 없다. 떨어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이 허무한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고초를 이 수 일동안 견디어 왔다. 이제는 연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속죄해야 하는 것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죄과가 이 괴로운 운명을 초래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몸에 닥친 불운은, 곧 신이 내준 은혜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하며, 주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앞으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 신을 섬기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현세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여 변함없는 것은 무엇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본 작품에서 오타의 신앙은 마리아를 둘러싼 주변인물인 고니시와 소요시토시 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속의 기리시탄 고니시일가의 가족을 통해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타는 마리아와 소요시토시와의 관계 속에서는 기도를 배우고, 고니시를 통해서 기리시탄으로서의 삶의 지표를 배우게 된 것이다. 오타 줄리아의 일생은 그녀가 기리시탄이 되어 가는 형성과정을 그려내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속의 기리시탄이 전란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정을 드러내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 묘사된 시간과 공간의 변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작가가 그녀의 신앙형성을 통하여 작품 속에 모티브가 된 오타 줄리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기리시탄인 오타 줄리아의

17) 今回、不意の事件に遭遇し、苦しみのほど書面では書き尽しえない。落涙おくあたわず、このはかなき人生で耐えられる限りの責苦をここ數日來、忍んできた。今や煉獄で受くべき諸々の罪を償うべく、苦しみぬいている。自分の今日までの罪科がこの辛い運命をもたらしたのは確である。されど身にふりかかった不運は、とりもなおさず神の与えたもうた恩恵に由來すると考え、主に限りない感謝を捧げている。最後にとりわけ大切なことを申しのべる。今後はおまえたちは心をつくし、神に仕えるように心かけてもらいたい。なぜなら、現世においては、すべて変転きわまりなく、恒常なるものは何一つとして見当たらぬからである。주 6)과 같음 책, p.129.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상 되었는지 살펴보자.

4. 기리시탄으로서의 오타 줄리아

『삼채의 여자』에서 오타(=수란)가 기리시탄을 수용하는 과정은 마리아와 고니시 그리고 소요시토시 등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그럼 오타가 기리시탄이 된 후의 모습은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오타가 조선 여인을 표상하는 코드는 수란 어머니의 「은장도=당삼채」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이 「은장도」는 작품 중반부터 결말까지 작품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장면에서 키워드로 작용 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처음 「은장도」가 묘사된 것은 도공 이광희의 시선을 통해서이다. 도공 광희가 아들과 함께 화장토를 구하러 갔다 돌아오는 밤중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 가보니 그 아이의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죽어 있었다. 이 여인은 수란의 어머니로 피난을 가던 중 왜적을 만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은장도」로 자결한 것이다. 이때 도공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 수란을 데려왔으며, 그녀에게는 단지 양반의 딸이라는 것만 알려주었다. 수란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된다. 예를 들면 수란은 일본에 끌려온 후 쓰시마의 금석성에서 지낼 때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두려워지자 어렸을 적 양할아버지가 말해준 ‘수란은 양반의 딸’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가다듬는다. 즉 수란은 자신이 「양반의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 그러나 수란은 그 외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공 양할아버지는 수란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할아버지 광희는 죽기 직전에 수란에게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를 건네주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준다. 이때 수란은 어렸을 적 기억에 아버지의 옷에 학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낸다. 이로 인해 수란은 아버지가 문관이며 양반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양할아버지가 수란에게 「은장도」를 건네 준 것은 그녀가 조선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란은 이때야 비로써 어머니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어머니의 「은장도」는 조선여인의 표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머니의 「은장도」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조선여인의 상징이며, 이 상징 속에는 조선시대 여인의 절개와 지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 작가는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 유린을 당하느니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조선여인의 정절에 대한 부분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조선여인에 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장경남의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에 의하면 임란의 실기문학은 중군실기, 포로실기, 호종실기, 피란실기로 구분하면서 중군실기와 포로실기는 충성과 효성이, 호종실기는 충성이, 피란실기에는 정절이 주로 서술되었다고 한다¹⁸⁾. 특히 피란실기문학에는 왜적에게 유린을 당하느니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여인들의 「정절」에 대한 서술이 많았으며, 조정의 『임란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오희문의 『쇄미록』등을 소개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정절」에 대한 실기문학은 전란 속에서도 윤리적인 규범의식을 잃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묘사된 수란의 어머니는 이러한 피란실기의 역사적 맥락 속에 서술된 조선여인의 모습으로 조선여인의 「정절」을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코드로써 「은장도」는 작품 속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수란의 신앙에 대한 절개와 조선여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은장도」는 수란의 신앙을 가장 강하게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모티브로 작용한다. 오타는 기리시탄 신자가 된 후 나가사키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있는 스푸성으로 불려가게 된다. 그녀가 스푸성에 시녀로 불려가게 된 것은 약초를 잘 다루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타는 충명하며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었다. 오타의 아름다움은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눈에도 띄어 측실로 하려는 속마음이 있었지만, 오가쓰(お勝)가 ‘약초차를 제조하는 데에는 더럽혀지지 않은 몸이 아니면 효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도쿠가와와는 딸의 죽음을 계기로 모두가 있는 곳에서 오타를 범하려고 한다.

발자국 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다음 순간 오타는 (이에야스의) 강한 힘에 의해 끌어 안겨 있었다. 냄새나는 노인의 숨결이 뱀의 껍질처럼 차갑게 붙어 느꼈다. 오타는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였다.(중략)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무언의 싸움이 계속되다가 가슴에 거친 손이 느껴진 순간, 갑자기 꽉 껴안고 있던 팔이 풀렸다. 정신이 들자 오타는 한쪽 손에 어머니의 유품인 장도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²⁰⁾.

18) 張庚男(2000)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p.214.

19) 張庚男(2000), 앞의 책, p.235

20) 荒い足音に顔をあげた。次の瞬間、おたあは強い力で抱きすくめられていた。臭い老人の息が吹きかかり、蛇の膚のように冷たいものを頬に感じた。おたあは顔をそむけ、あらがった。(中略)時間が停止したような無言の争いがつづき、胸に荒い手が感じられた瞬間、だしぬけに抱きすくめられていた腕が離された。気づくとおたあは、片手に母の形見粧刀を握りしめて、自分の首筋にあてていた。주 6)과 같음 책, pp.163~164.

이때 수란은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때 오가쓰가 도쿠가와를 향해 ‘오타는 기리시탄’이라며 그만 두라고 한다. 작품 속에서 오타가 저항한 도쿠가와는 천하를 장악한 최고 권력자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천하의 권력자인 도쿠가와를 「은장도」로 위협한 것은 죽음을 각오 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포로이며 시녀인 그녀가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에게 반항을 한 것이다. 그 후 기리시탄 박해로 인하여 오타는 표면적으로 배교하라는 권유를 당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다. 도쿠가와도 그녀에게 ‘내가 미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가쓰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 아이를 낳고 싶다가에 하는 말이다. 개심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불러 들이지’라며 그녀에게 배교할 것을 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응하지 않자 고즈시마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즉 천하를 손에 넣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오타를 손에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神)과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를 같은 연장선상에 놓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神)을 선택한 오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 오타가 절대 권력을 가진 도쿠가와에게 자신을 의탁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리시탄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은장도」는 오타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그녀가 조선여인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오타 줄리아라는 조선 여인의 이미지를 조선시대 여성의 정조, 즉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은장도」를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삼채의 여자』에서 장도는 오타 줄리아가 조선 여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기리시탄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의 제목 속에 들어있는 「당삼채=은장도」는 오타의 출생과 어머니의 죽음을 풀어내는 코드이면서, 그녀가 조선여인임을 인식하는 키워드로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에 고즈시마섬까지 유배 온 오타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은장도」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때 오타는 「은장도」를 던지기 전 바다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다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간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나라로의 통로를, 언젠가, 자신도 지나갈 것이다. 다양하게 고심하면서도……21)

21) 優しい人たちが次つぎにこの世から去っていく、と思った。けれど、その人びとの行きざまのなかに秘められている 天への通路を、いつの日か、自分も通って行こう。さまざまに惑いながらも……。 주 6)과 같은 책, p.220.

오타의 이 기도는 조선에서 일본에 끌려와 생을 마감한 도공 양할아버지를 비롯해 일본의 기리시탄인 마리아, 마리아의 갓난아기, 고니시 유키나가 등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며, 언젠가 자신도 기리시탄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오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은장도」를 바다에 던진 것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타에게 있어 「은장도」는 어머니의 유품이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이며, 그녀가 고국인 조선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하의 권력자인 도쿠가와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은장도」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은 신(神)을 기리고 찬양하는 기리시탄의 모습을 「은장도」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오타 줄리아의 파란만장한 삶을 현대 일본문학 속에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삼채의 여자』에 나타난 오타 줄리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수란을 통하여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들의 삶을 비추어 내는 존재로, 두 번째는 수란이 일본에 끌려간 후 기리시탄이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오타(=수란)가 기리시탄이 된 후의 삶을 「은장도」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삼채의 여자』는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을 서두로 하여 작품 속의 모티브가 된 오타 줄리아를 통하여 그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삶을 조명해 냄과 동시에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하사미 마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사미 마을에 대한 부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역사 속에 가리어진 그들의 삶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타(=수란)가 기리시탄을 수용하는 과정은 일본의 기리시탄 신자인 마리아와 고니시 소요토시의 등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타의 이러한 신앙의 형성 과정은 같은 여성으로서 기리시탄의 삶을 살아간 마리아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일본 역사 속에서 말살된 기리시탄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삶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삼채의 여자』에 쓰여진 오타 줄리아라는 모티브는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은 조선여성으로서의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조선여인의 표상은 어머니의 「은장도」를 통하여 기리시탄으로서의 절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본 현대문학 속에서 보여지는 오타 줄리아의 이미지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하여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보여지는 타자의 시점보다는 주체인 오타 줄리아의 내면적 시점에서 쓰여졌다. 『삼채의 여자』는 오타 줄리아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여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의 삶을 비롯하여 일본 기리시탄의 삶까지 다양하게 조명해 내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의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参考文献】

- 노성환(2010) 「하사미 도자기와 조선도공」 『日本語文学』, 韓国日本語文学会, p.288.
- 박현옥(2012) 『엔도 슈사쿠의 「유리아라고 부르는 여자론 -‘유리아에 투영된 오타 줄리아의 이미지-」, 일본학연구(제35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 張庚男(2000)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p.214.
- 鳥津亮二(2010) 『小西行長-「抹殺」されたキリシタン大名の実像-』, 八木書店, p.128.
- 田村襄次(1979) 『孤島の華』, おたあジュリア表慶. 会中央出版社, p.36.
- 森禮子(1983) 『三彩の女』, 主婦の友社, p.4.
- 俞華濬(2003) 「李參平-日本の神になった朝鮮陶工-」 『日本の架け橋になった人びと』, 明石書店, p.37.
- クラセ著·大政官本局課訳(1880) 『日本西教会史 下巻』, 博聞社, p.197.
- J.G.ルイズデメディナ(1988) 『遙かなる高麗-16世紀韓国開教と日本イエス会-』, 近藤出版社, p.217.

要 旨

本稿では、森礼子の『三彩の女』において朝鮮女人であるおたあ・ジュリアのモチーフが日本の現代の文学の中でどのように形象化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作品の分析は、おたあ・ジュリアの生涯を中心に三つの視点から試みた。第一番目は、秀蘭(=おたあ・ジュリア)の視線を通して壬辰倭乱の時、日本へ連れられた陶工たちの行き方を、二番目は、秀蘭が日本へ連れられてからキリシタンになって行く過程について焦点を合わせてみた。三番目は、秀蘭(=おたあ・ジュリア)がキリシタンになってからの姿について「銀粧刀」のキーワードを通して考察した。『三彩の女』は、壬辰倭乱の歴史的な背景に基づいて、おたあ・ジュリアのモチーフを通して、その当時、日本へ連れられた陶工たちの生を浮彫りにしているし、彼らが共同体を形成して生きていた波佐見村を紹介しているところに大きな意味のある作品と言えるのである。なぜなら、波佐見村は、韓国だけではなく、日本でもあまり知られてなかったのですが、この作品を通して朝鮮の陶工たちをはじめ、その地域を知らせるきっかけになったからである。

そして、おたあ・ジュリアの信仰の形成過程は、日本から出会った切支丹であるマリアをはじめ、様々な人物の関係を通して彼女の波乱万丈な人生が描かれている。それに、このようなおたあ・ジュリアの姿は、日本の切支丹であるマリアと宗義智と日本の歴史から抹殺された小西行長の人生も浮彫りにする役割も果たしている。『三彩の女』に描かれたおたあ・ジュリアは、激変する時代の流れの中で、いかなる試練にも屈服しないの朝鮮女人のイメージとして表れている。このような、朝鮮女人の表象は、母の「銀粧刀」を通して、キリシタンとしての節義が強調されている。

『三彩の女』は、おたあ・ジュリアのモチーフを中心にし、彼女の人生だけではなく、文禄・慶長の役の時、日本へ連れられた陶工の人生をはじめ、日本切支丹の人生まで、様々な視点から照らし合わせているので、韓・日の両国においても意義の作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おたあ・ジュリア，文禄・慶長の役，切支丹，陶工，焼きもの，
朝鮮女人，母，銀粧刀，貞操，貞節

투 고 : 2012. 5. 31
1차 심사 : 2012. 6. 16
2차 심사 : 2012. 7. 7